

을사년(2025)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국내 분위기는 여전히 을씨년스럽다. 3월 봄에는 경북 의성, 안동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마(火魔)가 휩쓸고 지나간 산자락에 검게 탄 나무들이 참혹하기만 하다. 또 대통령 선거일이 6.3일로 결정되자 대법원의 법마(法魔)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후보자 이재명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얼마 전 상식을 갖춘 70대 노인이 파기환송(破棄還送)과 파기자판(破棄自判)의 한자와 의미를 물어보면서, '파기자판'의 의미에 관한 설명을 원했다. 학교에서 학생(고법)이 숙제하여 선생님(대법원)께 제출한 결과, "답은 작성했지만, 숙제 방향이 틀렸다."라고 평가하여 학생에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더니 쉽게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하소연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부정확한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허위 발언을 근거로 당선 무효나, 유효나 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20여 일 앞둔 이번 선거에 또다시 "이 사건을 대입해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박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침해하는 것이죠"라고 했다. 요즘 우리나라 70대 노인들의 정치참여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에게 많은 음모론을 의심하게 했다. 사건 접수 9일 만에 나온 속도전 판결로 민주당에서 다양하게 분석하며 판결 부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법마(法魔)들의 음모론

당성과 음모론을 추궁했다.

대법원판결은 재판관 10명이 7만 페이지의 정독 여부, 윤석열 임명 법관 10명 모두 노골적 선거 개입, 형사처벌 불가능한 백현동 국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묶어서 심리하는 등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런 선거의 음모론을 제기한 요소가 한두 가지 아니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는 지휘관 판사는 15년 후배 햇병아리 판사 둘만 데리고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윤석열 석방했는데, 이때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한 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9명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이날 한덕수 총리 사임,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자 재빠르게 사임하자 한 총리가 재빠르게 사표 수리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로스쿨 모 교수가 발언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법원이 파 놓은 '합정'을 유념하라는 발언이 돋보인다.

즉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5월 11일을 넘긴 1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첫 공판이 열린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주어진 상고 기간 7일 안에 대법원에 제상고를 등록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문체가 없으니, 피고인의 제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바로 상고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속전속결로 '파기자판' 해버리면 모든 상황은 끝나버린다. 이러한 것이 견강부회(牽強附會) 논리로 국민은 음모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둔

다면 북한 1인 독재처럼 혼자 출마하여 100% 지지받은 공산주의식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기호 1번 없는 대선, 기호 2번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되어도 국힘당 세력이다. 그렇다면 결국 내란 정권의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는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로 풀려나오겠다는 음모로 보인다.

그런데 검·판사들이 왜 이재명을 싫어할까?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조작, 판·검사 상호 비리 행위 봐주기 등 영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이재명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검사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역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에 포획됐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날 5.1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쿠데타가 여실히 입증했고, 이에 야당과 민주당시민들만 격노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 판사들마저 실명을 밝히며 공개 비판하고 있다.

권력 엘리트들의 정의로운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깊숙이 숨어있는 음모론인지 밝혀야 한다. 잘못됨을 따져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직면한 사법개혁 과제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음력 4월 10일)

<p>48년생 포기할수 없는 이유를 가져보자 60년생 열악한 기운 행복의미소가 그려진다 72년생 스쳐가는 위기 응원을 불러보자 84년생 간절한 영원소원 성취할수 있다 96년생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가자</p>	<p>49년생 들어서는 모습 감고 싹싹하자 61년생 갈고 속이 다른 유혹이 다가선다 73년생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져보자 85년생 적극적인 구애 하라기 열어준다 97년생 총분히 연습했던 결과가 남겨진다</p>	<p>50년생 게으름이 허용된 자유를 가져보자 62년생 이김없는 표현 장점이 될수 있다 74년생 길었던 부진에 꼬리가 들려준다 86년생 이면저원 고민 시간으로 지워진다 98년생 훌륭한 성적표 칭찬은 덤으로 온다</p>
<p>51년생 든든한 식구가 울타리를 채워준다 63년생 열악한 조건에서 최고를 찾아보자 75년생 친구도 우정도 모른 척해야 한다 87년생 초조했던 단강촌적조차 지워진다 99년생 몽으로 하는 고생가치를 더해준다</p>	<p>52년생 반기음이 없어도 장단을 맞춰주자 64년생 화려한 전성기 날개를 펼쳐보자 76년생 갈끔한 정리정돈 미련 남기지 마라 88년생 관하하는 수고 우습게 보여준다 00년생 서열로는 막내 가장 노릇 해야 한다</p>	<p>53년생 풍성한 결실 공간이 차고 넘쳐난다 65년생 한숨도 슬픔도 기억에서 사라진다 77년생 어려운 거절도 강하게 해야 한다 89년생 복치고 장구치고 혼자 버텨준다 01년생 혹독한 기르침 약속하게 받아내자</p>
<p>54년생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빛내자 66년생 신선이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보자 78년생 한침이나 몇잔의 목표가 보여준다 90년생 욕심도 고인도 바람에 실어보자 02년생 쑥쑥 자란 솜씨 혼수까지 들수 있다</p>	<p>55년생 쇠심줄 고집으로 처음을 지켜내자 67년생 공들인 노력이 값으로 매겨진다 89년생 주머니 번기니 사랑을 속삭여보자 91년생 마음을 빼앗기는 제인을 들어보자 03년생 더 넓은 세상으로 문을 두드려보자</p>	<p>56년생 좋다 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보자 68년생 자존심의 상처 게으름이 원인이다 80년생 준비는 끝났다. 공을 실현해보자 92년생 힘든 일은 해도 재미가 우선이다 04년생 서로에게 반하는 만남을 가져보자</p>
<p>57년생 예쁘게 나온 결과 지갑이 살려준다 69년생 잘하고 있기에 밀줄을 그어보자 81년생 물과 기름이 어도 의리로 뭉쳐보자 93년생 물심양면 도움 날개가 펼쳐진다 05년생 깨끗한 번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p>	<p>58년생 가시밭길 지나고 꽃길을 걸어보자 70년생 아름다운 여백 심표를 짚어보자 82년생 감동이 배가 되는 소식을 들어보자 94년생 차별화 전략으로 백점을 받아보자 06년생 스승의 가르침 닦으려고 애를 쓰자</p>	<p>47년생 급하게 하는 약속 금방 후회가 된다 59년생 무조건 반대 잘못임을 알아내자 71년생 까다로운 절차 건-취고 생략하자 83년생 대신하는 자리라면 보여준다 95년생 보람이 자부듯할, 애가 될수 없다</p>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리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